



KIA 타이거즈 최완 애시스 양현종 (사진왼쪽) 두산 베어스 거포 김재환 이 7월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KBO리그 7월 MVP 선정

KIA 타이거즈 양현종 · 두산 베어스 거포 김재환 공동 수상

KIA 타이거즈 최완 애시스 양현종(29)과 두산 베어스 거포 김재환(29)이 나란히 7월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KBO는 3일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타이어뱅크가 후원하는 7월 MVP에 양현종과 김재환이 공동 수상자로 뽑혔다고 밝혔다.

두 선수는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1차 투표에서 6명의 후보선수 중 양현종과 김재환이 각각 동일하게 12표를 얻었다.

1차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선수는 2차 최종 투표에 돌입했지만 각각 14표를 획득하며 공동 수상자가 됐다.

양현종은 2013년 4월과 지난해 7월에 이어 3번째 월간 MVP에 선정됐고 김재환은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양현종은 7월 한 달 간 5경기에 선발 출장에 4승을 거두는 등 월간 승리

공동 1위에 올랐다.

7월2일 잠실 LG전 승리를 시작으로 3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한 뒤, 27일 광주 SK전을 완투승으로 장식했다.

이 기간 321/30이닝을 소화하며 132타자를 상대로 삼진 31개를 잡아 탈삼진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2.78로 5위다.

현재(2일 기준) 시즌 14승으로 다승 부문 2위에 올라있는 양현종은 핵터(15승, 1위)와 함께 팀 승수(63승)의 절반에 가까운 29승을 합작하며 팀의 원투펀치로 1위 독주를 이끌고 있다.

양현종은 "7월 MVP를 받게 돼 영광이다. 우선 팀 승리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뿌듯하다. 동료 선수들이 공수에서 도움을 줬기에 상을 받게 된 것"이라며 "타자들이 뛰어난 공격력으로 많은 도움을 줬고 어려운 때에도 나를 믿어준 감독님과 코칭스태프에게 감사하다. 팬들의 응원도 항상 힘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두산 김재환은 7월 한 달간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했다. 20경기에 출전해 타율 0.434(76타수 33안타)를 기록했다.

안타와 타율은 물론 홈런(9개), 출루율(0.506), 장타율(0.855)까지 무려 5개 부문 1위를 석권했다.

7월 한 달간 5할대 출루율과 8할대 장타율을 기록한 선수는 김재환이 유일하다.

21득점과 24타점도 각각 공동 2위에 오른 만큼 김재환은 화려한 방망이로 최근 팀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김재환은 "최근 팀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 같아서 기분 좋다. 앞선 타자들이 좋은 찬스를 만들어줘 가능했다"며 "나머지 타자들도 팀이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좀 더 부담 없이 타석에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현종과 김재환에게는 각각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뉴시스

WC최종예선, 이란전 입장권 10일부터 판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31일 오후 9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9차전 이란과의 경기 입장권을 10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입장권은 인터파크 티켓과 KEB하나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뷔페가 제공되는 R석이 15만원이며 대표팀 의류가 선물(품목 및 사이즈 무작위)로 증정되는 레드박스석은 12만원이다.

본부석이 위치한 서쪽은 스페셜석 7

만원, 1등석 6만원, 2등석 4만원이다. 본부석 건너편인 동쪽은 서쪽에 비해 1만원씩 저렴해 1등석 5만원, 2등석은 3만원이다. 남쪽은 하단(1층) 3만원, 상단(2층)은 2만원이다. 응원석에 해당하는 북쪽 관중석 레드존은 하단(1층) 2만원, 상단(2층) 1만원에 판매한다. 동쪽 1,2등석과 남쪽 하단 좌석은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초·중·고 학생과 4대 동시 구매자는 30% 할인 5~10매 동시 구입자와 K리그 각 구단 시즌권 보유자(인 4

매까지)는 40% 할인이 적용된다.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식 등록선수 10만명 돌파를 기념해 KFA 등록선수와 등록심판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 사전판매를 진행한다.

2017년 등록비를 납부한 KFA 등록선수와 심판이면 동쪽 1등석과 2등석 500석에 한해 선착순 구입할 수 있다. 입장권 정식 발매전인 7일부터 9일까지 KFA 등록 홈페이지(jink.com)에 로그인 한 후 구입 가능하다.

/뉴시스

추신수, 2경기 연속 멀티히트 활약

4타수 2안타 2득점... 팀 연패 탈출 견인차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2경기 연속 멀티히트 활약으로 팀의 연패 탈출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추신수는 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일링턴 글로브 라이프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 홈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 2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3안타 맹타를 휘두르기도 팀 패배로 웃지 못했던 추신수는 최근 2경기에서 5안타를 뽑아냈다.

시즌 타율은 0.255에서 0.258(357타수 92안타)로 상승했다.

팀도 시애틀에 5-1로 승리하며 4연패에서 벗어났다.

추신수는 1-1로 맞선 1회말 무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아리엘

미란에게 우전 안타를 때려냈다.

4회 선두타자로 나선 두 번째 타석에서도 우익수 방면에 안타를 치고 출루했다.

후속 타자의 타석 때 폭투로 2루를 밟은 뒤 엘비스 앤드루스의 2루타 때 3루에 안착했고, 아드리안 벨트레의 희생플라이로 균형을 깨는 득점에 성공했다.

6회에는 2루수 실책으로 출루해 앤드루스의 투런 홈런 때 홈을 밟아 시즌 득점을 62개로 늘렸다.

8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범타에 그쳤다.

텍사스는 이날 승리로 4연패를 끊고 51승 56패가 됐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 선두 굳히기 돌입

6일 홈에서 울산현대와 K리그 클래식 25라운드

전북현대포터스축구단이 연승가도에 역세를 밟는다.

전북현대에는 오는 6일 울산현대를 상대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클래식 25라운드를 치른다.

지난 2일 인천과의 원정경기에서 3대 1로 승리를 거두며 승점 50점 고지에 오른 전북은 이날 경기를 승리로 장식해 2위와의 격차를 더욱 벌일 계획이다.

특히 울산과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로 무패행진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 19라운드 홈경기에서는 4대 0의 대승을 거두는 등 울산에게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승리를 거둘 경우 승강제가 시작된 K리그 클래식 이후 최초로 10승 고지에 오르는 팀이 되기도 한다.

이날 경기에서는 지난 인천전에서 출전하지 않았던 K리그 레전드 '이동국과 김신욱이 울산의 골문을 노린다.

울 시즌 로테이션을 활용한 공격수 기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누가 출전을 하더라도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교원의 합류로 공격력이 높아

진 측면은 퇴장으로 2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했던 로페즈가 복귀해 더욱 무서운 힘을 받게 됐다.

또 미드필더에서는 이재성(MF)-이승기-신형민이 나서 공·수를 조율하게 되며, 김진수와 부상에서 회복한 이재성(DF), 김민재, 최철순이 무실점에 도전한다.

최강희 감독은 "4연승을 이루며 팀 분위기가 상승세를 탔다"며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반드시 승리를 거둬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PSG행 네이마르, 1주일에 11억5500만원... 최고 몸값 예약

FC바르셀로나(스페인)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 입성을 앞둔 브라질대표팀 공격수 네이마르가 세계 최고 몸값을 예약했다.

네이마르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PSG 이적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술한 구설에도 이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던 바르셀로나는 카타르 자본을 등에 업은 PSG가 바이아웃 금액인 2억2200만 유로(약 2964억원)를 제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선수를 내주는 분위기다.

PSG 입성과 함께 네이마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격수로 등극할 전망이다. 영국 BBC는 3일(한국시간)

네이마르가 PSG에서 주급 86만5000유로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돈으로 매주 11억5500만원씩을 챙기는 셈이다.

네이마르의 주급은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의 50만 파운드(약 7억 4500만원)를 크게 상회한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의 34만5000파운드(약 5억4400만원)보다는 2배 이상 많다.

네이마르는 중국 상하이 선화에 입단하면서 주급 1위로 등극한 카를로스 테베스(9억 1700만원)까지 제쳤다.

네이마르는 이미 바르셀로나 동료들을 만나 자신의 PSG행을 알렸다.

네이마르의 이적은 1인자가 되고 싶은 욕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네이마르는 MSN(메시-수아레스-네이마르) 트리오의 일원으로 바르셀로나를 세계 최정상에 올려놓지만 메시에 가려 2인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과는 좀처럼 연이 닿지 않는 PSG는 네이마르를 앞세워 유럽 정상에 도전할 계획이다.

메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네이마르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메시는 "지난 몇 년 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다 새로운 인생의 행운을 빈다"고 적었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